

동학개미, 국내 이어 '해외 직구'... 美 주식거래 역대 최대

증권사 중심 해외주식 직구추진 증가
안정적인 美 대형주 매수 수요 강제
주식거래 편의성 높아져 접근성 ↑

#. 주부 A씨(65)는 최근 주식거래를 위해 증권사 영업점을 찾았다. 영업점에서는 보유 중인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미국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는 전 세계 1위 기업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더 주목받을 기업이란 말에 A씨는 솔깃했다.

미국 주식에 대한 개미(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최근 증권사 영업점을 중심으로 돈을 가진 투자자에게 미국 주식 직구를 적극 추천하는 사례도 많아졌다는 후문이다. 주부 개미까지 해외주식 직구에 관심이 높아졌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6월 미국 주식 거래규모(매수+매도)는 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6월 들어 지난 19일까지 거래규모는 127억 3414만달러로 이미 종전 최고 기록인 지난 3월 123억8839만달러를 넘어섰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수 상위 종목〉

순위	국가	종목코드	종목명	매수결제
1	미국	US88160R1014	테슬라 모터스	493,909,897
2	미국	US0970231058	보잉	297,617,143
3	미국	US5949181045	마이크로소프트	257,127,177
4	미국	US0378331005	애플	228,708,200
5	미국	US2473617023	델타 에어라인	191,016,424
6	미국	PA1436583006	카니발	134,981,063
7	미국	US02079K3059	알파벳	133,346,308
8	미국	US74347X8314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128,735,158
9	미국	US0231351067	아마존	126,995,381
10	미국	US22542D2586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115,803,337

/한국예탁결제원

올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거래 규모가 100조원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연초 이후 지난 19일까지 거래규모를 원화로 환산했을 때 이미 70조원을 넘어섰다.

해외 주식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매수 패턴도 바뀌었다. 그동안 원유 상장지수펀드(ETF), 나스닥지수를 3배 추종하는 ETF 등으로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보였다면 현재는 안정적인 미국

대형주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강해지고 있다.

6월 들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종목 상위 50개 중 43위인 중국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SMIC(홍콩)를 제외하고 모두 미국 주식이 이름을 올렸다. 매수 상위종목은 테슬라, 보잉,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순이다.

이는 미국대표주에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난 10일 기준 애플, MS,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등 빅5의 시총액 합계는 지난해 한국 정부 예산(약 476조원)의 148.5배 규모다.

심지어 아마존의 경우 주가가 현재보다 90% 오른 주당 5000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라 과격적인 전망이 미국 내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아마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 이유에서다. 애플은 사상 최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대형주인 삼성전자 주식이 10% 오르는 동안 아마존, 애플 등의 주식은 30% 이상 올랐다"면서 "적극적인 투자성향

을 가진 투자자라면 미국 주식에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조언했다.

증권사들의 해외주식거래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주식 거래 편의성도 높아진 상태다. 주식을 잘 모르는 주부들도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된 것이다.

증권사의 한 프라이빗뱅크(PB)는 "예전과 달리 해외주식 투자 시 환전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환전에 드는 수수료도 상당히 낮아졌다.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수준이다"면서 "오래 거래를 해 온 고객들에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주식을 권하기도 한다"고 했다.

한편 증권사들은 해외로 자금을 옮기는 개미를 잡기 위해 각종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신규고객에게 최대 40달러의 투자 지원금을,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 타사 입고시 최대 현금 150만원을 제공한다. 현대차증권은 최근 해외거래 시스템을 개시, 본격적인 해외주식거래 경쟁 시장에 진입했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인공지능 기술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
2020년 6월 23일
한국은행은 23일 서울 중구 본부에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인공지능 기술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왼쪽)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백상엽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은

금융위, 금융사 CEO '셀프 연임' 제동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대주주 자격심사 특경기법 위반 추가

정부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지금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임추위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금융사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에 '특정경제기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기법)' 위반을 추가하며, 적격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주식처분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CEO는 금융전문성과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추위의 독립성은 강화한다. CEO를 포함한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할 수 없다. 임추위는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CEO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하면 안된다.

감사위원의 최소임기 2년을 보장하지만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는 6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다.

임직원 보수통제도 강화한다.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직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한다. 구체적인 금액기준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또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상장 금융사는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의 보수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해야 한다.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에 특경기법 위반을 추가하고, 최대주주가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최태원 "기업, 경제적 가치가 전부 아니다"

(SK그룹 회장)

SK그룹 2020 확대경영회의

CEO '스토리 텔러' 역할 중요성 강조
여러 스토리가 모여서 기업가치 제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익 추구를 넘어 고객과 사회에 신뢰를 얻는 새로운 기업 가치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SK그룹은 23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2020 확대경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회의는 패널 토론 방식으로 집단 지성을 활용, 기업가치 제고방안을 모색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을 감안해 최 회장과 CEO 등 최고 경영진들만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패널 토론에 참석하고 다른 경영진들은 온라인으로 회의를 지켜봤다.

이날 회의에는 최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및 7개 위원회 위원장, 주요 관계사 CEO 등 30여 명이 참석해 토론에 참여했다.

SK CEO들은 패널토론에서 파이낸셜 스토리에 기반해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경영전략과 실천방안을 모색하면서 열린 토론을 이어갔다.

최 회장은 이날 '파이낸셜 스토리와 CEO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을 직접 주재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기업 가치가 단순히 재무성과·배당정책 등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지속가능성·ESG 등 유·무형자산을 모두 포괄하는 '토탈밸류'라고 정의하고, CEO들에 시장, 투자자, 고객 등과 소통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자신만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0 확대경영회의'에 참석해 발표를 경청하면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SK

강조했다. 이에 대해 CEO 들은 각자별로 장애물 극복 방안과 함께, 기업가치를 높여 각자 스토리를 만들고 시장과 투자자, 고객 등을 끊임없이 설득해 소통하는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키워가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CEO 역할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그동안 성장을 가로막아 왔던 구조적 한계를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이뤄져야한다고, CEO들이 이 같은 구조적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한 성장 스토리를 준비해 출사표를 던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CEO들이 중장기 비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거둔 경제적 성과를 시장에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반영하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CEO가 고객과 사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신뢰를 확보하는 '스토리 텔러'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미다.

SK 관계자는 "앞으로 CEO들은 자본시장의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파이낸

셜 스토리, 사회문제도 해결하는 사회적 가치 스토리, 친환경 비즈니스를 접목한 ESG 스토리 등 자신의 경영환경에 맞는 여러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결국에는 총체적인 기업가치를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대식 의장도 최 회장에 앞선 오프닝에서 "글로벌 선진기업은 고유의 강점을 내세워 신성장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신생 스타트업은 획기적 신기술로 높은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반면 SK는 기존 사업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절실함과 실행력 부족을 그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어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 가시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빠르고 과감하게 만들어 나가자"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안정적 수익과 미래 성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SK 그룹의 포트폴리오 운영 방향을 고민하고, 그룹 차원의 성장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SK 관계사들이 상호협력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김재용 기자 juk@